

# 다시 만난 전북...이번에도 승리다



이음름 신창무 박한빈 오후성

## 광주FC, 무대 바꿔 리턴매치...오늘 FA컵 8강 격돌

리그 강호 전북현대를 상대로 6년 만에 승리를 거둔 광주FC가 리턴매치를 치른다. 이번 무대는 K리그1이 아닌 FA컵이다. 광주는 28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2023 하나원큐 FA컵 5라운드 8강전을 치른다. 지난 24일 전북을 홈으로 불러들인 광주는 탄탄한 수비와 조직력, 뜨거운 공격을 앞세워 2-0 완승을 거뒀다. 광주는 이 날 2017년 4월30일 이

## 6년 만에 승리 자신감안고 창단 첫 FA4강 도전 주말 울산전 대비 로테이션 가동...“연승 가보자”

후 2천247일만에 전북전 승리라는 기쁨을 더했다. FA컵 포함 7경기 무패(5승 2무)로 최고조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4일만에 FA컵 8강전에서 다시 전북을 상대하는 만큼 강한 자신감으로 창단 첫 FA컵 4강이라는 새 역사를 향해 달려겠다는 각오다. 광주는 이번 전북 원정은 로테이션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말에 있을 ‘다렌딩 챔피언’ 울산 현대와의 홈경기를 위해 체력 관

# 역대 최장 159주 세계 랭킹 1위 고진영, 女골프 새 역사

고진영이 총 159주간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유지해 이 부문 신기록을 세웠다. 고진영은 27일 오전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도 1위를 지켜 개인 통산 159주간 세계 1위를 유지했다. 이로써 고진영은 은퇴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2010년 달성한 158주 세계 1위 기록을 13년 만에 뛰어넘었다. 고진영은 이번 주 세계 랭킹에서 랭킹 포인트 831점을 획득, 7.45점의 2위 벨리 코다(미국)를 앞섰다.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통해 “오초아와 같은 선상에서 여러 사람에게 언급되는 것이 영광”이라며 “행복한 일이지만 또 겸손해진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6년 창설된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총 100주 이상 1위를 지킨 선수는 고진영, 오초아를 비롯해 리디아 고(뉴질랜드·125주), 쟈니(대만·109주), 박인비(106주)까지 5명이 전부다. 고진영은 2019년 4월 처음 세계 1위가 됐으며 이후 2019년 7월, 2021년 10월, 2022년 1월 올해 5월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해 총 159주를 채웠다. 오초아의 경우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3년 넘게 158주 연속 세계 1위를 지켰다. 이번 주 LPGA 투어 대회가 없



연합뉴스

# ‘강호’ 전북 잡은 광주FC, 19R ‘베스트팀’

이순민·두현석 ‘베스트11’이라고 밝혔다. 광주는 지난 24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홈경기에서 탄탄한 수비와 끈끈한 조직력, 막강한 화력을 선보이며 2-0 승리를 거뒀다. 이 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순민이다. 선발로 경기에 나선 이순민은 전반 19분 완벽한 세

트피스를 통한 헤더슛으로 시즌 1호골을 기록, 팀을 승리로 이끌며 경기수훈선수(MOM)에 선정됐다. 수비수 부문에 이름을 올린 두현석은 이순민에게 날카로운 롱패스를 공급하며 시즌 6호 도움을 기록했다. 또 탄탄한 수비와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보여주는 등 최상



의 컨디션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희중 기자



지난 4월6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와 kt 경기 가 우천으로 취소되자, 양현종이 덕아웃에서 비 내리는 경기장을 지켜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2연패를 달성한 후 우승기를 흔드는 권영인 광양여고 감독과 기뻐하는 선수들. <전남도체육회 제공>

# 광양여고, 여왕기 전국여자축구 2연패

라이벌 포항전자여고 제압...광영중, 중등부 준우승

광양여고가 제31회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광양여고는 지난 26일 경남 합천인 조4구장에서 열린 대회 고등부 결승에서 춘계연맹전 우승팀 포항전자여고에 2-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다. 준결승에서 경남 로보고를 4-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오른 광양여고는 전반 37분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4분 조혜영의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며 행운의 동점을 만들었다. 분위기를 끌어올린 광양여고는 후반 38분 조혜영의 크로스가 상대 골키퍼 손에 맞고 흐르자 정다빈이 인사이드 킥으로 밀어 넣어 역전에 성공했다. 남은 시간 포항전자여고의 막판 공세를 잘 막아낸 광양여고는 짜릿한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지난 4월 열린 2023 춘계한국여자축구연맹전 결승에서 포항전자여고에 패해 준우승했던 아쉬움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으로 설욕했다. 수비수 박인영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이번 대회 최다 득점을 올린



지난 20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리그 최초 1천500타점을 기록한 최형우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최형우 1천500타점 기념구 야구박물관에 전시

최형우(KIA 타이거즈)와 최정(SSG 랜더스)이 한국프로야구 기록사에 아로새긴 기념구가 야구박물관에 전시된다. KBO 사무국은 최형우의 1천500타점 기념구와 최정의 18시즌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념구를 기증받았다고 27일 발표했다. 최형우는 지난 20일 한화와의 원정 경기에서 2점 홈런을 터뜨려 프로야구 최초로 1천500타점 이정표를 세웠다. 최정은 이날 1일 열린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두 번이나 홈런을 쳐역시 프로야구 최초로 18시즌 연속 10홈런을 쳤다. 두 선수가 기증한 기념구들은 우선 KBO 아카이브센터에 보관했다가 2026년 부산 기장군에 개관하는 야구 박물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더블헤더냐, 월요일 경기냐

## 프로야구 31경기 취소...하반기 일정 수립 비가 '최대 변수'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2023 프로야구가 하반기 일정 수립을 서두르기 시작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과 KBO 사무국은 27일 야구회관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후반기에 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논의했다. 28일 현재 비 또는 미세먼지로 취소된 경기는 31경기다. 오는 9월에는 한겨울 아시아게임이 열리고, 11월 중순에는 한국, 일본, 대만의 프로야구 유망주들이 기량을 겨루는 아시아프로야구 챔피언십(APBC)이 벌어진다. 최소한 11월 초에는 정규리그, 포스트시즌을 모두 끝내야 한다. 한겨울 아시아게임 야구는 대회 후 내년 10월1-7일에 열린다. 정규리그는 먼 결국에는 감독, 선수 모두 싫어하는 월요일 경기 또는 더블헤더를 해야 한다. 10개 구단 단장과 KBO 사무국은 앞으로 벌어질 상황 등을 공유하고 취소된 경기 일정을 어떻게 편성할지 머리를 맞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감독들의 의견을 물어본 뒤 KB